

AI와 탄소중립 실현 ‘동신EXPO’ 성황

동신대 RISE사업단, 미래비전 공유
미래신산업 체험·유학생 어울림마당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AI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동신EXPO 2025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개막식은 지난 27일 이주희 총장,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강종철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지역 기업 대표, 동신대 재학생 등 400여 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정도서관 동강홀에서 개최됐다.

동신엑스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비전을 나누기 위해 동신대 RISE사업단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27일부터 이틀간 캠퍼스 전역에서 진행됐다.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민과 예비 신입생을 초청해 특강·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AI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대정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RISE사업단과 9개 센터를 소개하는 전시가 열렸으며, 동강홀에서는 어드벤처디자인 및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공학교육 혁신센터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창업동아리경진대회, 지역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인성교육 강화 프로젝트 심포지엄 등 혁신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선보였다.

대정도서관 3층에 개설한 에너지 자립마을인 나주대실마을 홍보관에서는 AI·SW코딩 자율주행 RC 체험장을 통해 AI와 에너지산업이 결합된 미래 신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됐다.

대정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는 글로벌 유학생 어울림마당이 개최됐다.

유학생들이 한국과 지역에 잘 적응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 제도 설명회, 지역 특화형 비자 설명회, 유학생 전남이주여성상담소 상담관 등 다양한 취업 및 상담 부스가 운영됐다.

K-남도의 맛 체험·제기차기·한복 체험 등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국가별 음식 체험 부스도 큰 인기를 얻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스마트 시티 조성하고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AI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을 품은 전남이 AI시대의 전성기를 가장 먼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의 기업이 성장하면 청년이 정주하고, 청년이 늘어나면 더 좋은 기업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신념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힘쓰고, 지역 기업들의 발전과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9일 순천삼산중학교에서 열린 2025 중등 2030수업나눔 한마당에서 2030수업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 미래교실 공유 ‘2030 수업나눔 한마당’

전남도교육청, 69개 팀 참여 수업 시연·연구 사례·국제 교류

전남 교육 현장에서 추진된 미래교실 전환과 수업 혁신 성과를 확인하는 수업나눔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순천에서 ‘2025 중등 2030수업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고 전남 교실 혁신의 변화 방향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콘퍼런스, 독서·인문·에듀테크 체험, 2030교실 실천 사례 공유, 교과연구회 배움마당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 다양한 수업 접근을 선보이며 현장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콘퍼런스 마당에서는 김병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질문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질문 중심 수업의 필요성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강대혁 순천미래학교 교사가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교사 주도 연구·실천의 확산 가능성을 소개했다.

2030교실 나눔마당은 9개 팀의 수업 시연, 42개 팀의 연구 사례, 18개 팀의 국제 교육교류 사례로 구성된 미래교실 전환의 구체적 실천을 담았다.

김민주 봉황고 교사는 ‘K-팝 활용과 지역 연계 버스킹 실천’ 음악 수업을 시연했고, 박유성 무안고 교사는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독서토론 기반 과학수업을 보여주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변화를 제시했다.

전남 교실을 해외 현장으로 확장한 국제 교육 교류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여수아리울중은 싱가포르와 일본 학교와 함께 ‘지역 이야기를 담은 굿즈 디자인 프로젝트’를 운영했고, 목포항도여중은 영국 학교와 협력해 ‘영국에서 진도아리랑을 외치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며 전남형 글로벌 연계 수업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교과별 시연을 직접 참관하며 교실 구성과 운영 방식, 학생 참여 전략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교사 주도의 수업 성장과 공동 연구를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해 2030수업교사와 연구회 구성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집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송원대, 라오스국립대와 철도 인재양성·기술교육 협력

복수학위제 등 학사협력 구체화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와 라오스 국립대학교 철도인력양성·철도기술교육 교류가 본래도에 올랐다.

1일 송원대에 따르면 최근 라오스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Laos, NUOL) 데싸누라트 세느두앙데트 총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 보직자들이 4박 5일간 송원대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라오스 현지에서 송원대가 체결한 라오스국립대학교와의 철도인력양성·철도기술교육 교류 MOU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송원대는 “이번 방문이 지방대 최초로 라오스국립대학교와 체결한 철도교육 협력이 실질적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두 대학은 라오스국립대 철도학과 신설 지원과 송원대 철도학부 교육 시스템 공유·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라오스국립대(2년) + 송원대학교(2년)의 2+2 복수학위제 운영에 대한 실무 논의도 진행했으며, 학생 교류, 교수 교류, 단·장기 연수 프로그램 등 학사협력 전반의 확대 방향을 구체화했다.



송원대 최수태 총장과 권성욱 부총장 등이 라오스국립대 데싸누라트 세느두앙데트 총장 등과 교류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송원대 제공>

또 라오스국립대 한국어와 활성화와 송원대 한국어학당 설치를 협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콘텐츠 공유, 한국어 교원 파견 및 연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원대학교 최수태 총장은 “이번 답례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교류가 아니라, 두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

요한 전환점”이라며 “철도, 공학,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아시아권 국제교육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송원대학교는 앞으로 라오스 철도학과 개설 지원, 복수학위 운영 준비, 한국어학당 설치 추진, 공동 연구 및 세미나 확대 등을 통해 라오스국립대학교와의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본관, ‘2026 대한민국 미래건축문화대상’ 수상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의 상징 건축물인 본관이 조선일보 선정 ‘2026 대한민국 미래 건축문화대상’ 학교시설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27일 코리안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미래 건축문화대상’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으며, 매년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만들어가는 우수 건축물과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조선대학교는 학교시설 부문을 수상하며, 시민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민립대학의 상징이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본관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조선대학교 본관은 1946년 7만 2천여 명의 조선대학교설립동지회원들이 뜻을 모아 건축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교직원·학부모가 힘을 모아 1954년 완공했다.

완공 당시 5개의 박공(gable)을 갖춘 단정한 형태였으며, 이후 증축을 거듭해 현재는 총 길이 약 375m, 19개 박공이 조화를 이루는 장대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붉은 벽돌과 화강석 기반부의 대비, 중앙 종루의 수직미와 박공의 삼각미는 한국 전통미와 서양 고전주의 양식이 절묘하게 결합된 독창적 조형미로 평가된다.

또한, 본관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1980년대 후반 학원민주화 운동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하며, 민주와 자치의 의미를 쟁취한 근현대사의 현장으로도 기록된다. 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낸 ‘열린 대학’, ‘참여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문화재청은 1954년 완공된 본관 중심부, 즉 초기 5개의 박공 구간을 ‘등록문화재 제94호’로 지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